

유물가

Vol.235



2021 / Winter

주 여!

이제 회복하게

하 소 서

스 10:1 · 12, 행 3:19~21



장로·안수집사·

2021년 12월 12일(주일) 오후 3시

· 고교교회· 하문길· 김기우· 박효정 · 안수· 서원복· 최재만· 박한진· 오광주· 박문성· 김경민· 김광우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스 10:1, 12 / 행 3:19-21



우물가

2021 Winter Vol.235

1979년 4월 15일 창간 | 계간
제43권 제1호 통권 235호
2021년 12월 23일 발행
고척교회 역사홍보팀
<http://new.gocheok.or.kr>

발행인 | 조재호 지도 | 김은희 부장 | 한영길 팀장 | 이재만
편집위원 | 이미선·김숙희·임흥모·이철현·김일환·이윤아
고척교회 | 서울시 구로구 중앙로 79 | Tel. 02.2686.5871~3 Fax. 02.2684.7677

CONTENTS

차례

- 002** 위임목사 칼럼 믿음으로 사는 인생
- 006** 기획특집 1 저출산 사회의 돌파구를 찾아라
- 저출산 문제, 사회적 과제만은 아냐
- 저출산 시대, 미래를 위한 영유아기 아동의 교육은 어떻게?
- 012** 기획특집 2 2022 고척교회 목회 중점 사항
- 014** 우물가 Twitter
- 042** 책, 알고 싶다 엄마 자판기, 아빠 자판기 | 조경희
- 044** 여유 N 힐링 긴 겨울에 나 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강화 교동도
- 050** 교육, 그거 쉬워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 053** 우리 교회는? 수능 족북 안수기도회
교사 한마음대회
찬양부 영성세미나
각 부서 이야기
선교지 소식
2021 향존직 은퇴예식
- 077** 그라티아 전시회





믿음으로 사는 인생

| 조재호 위임목사

기독교 교육의 대명사로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델러스신학대학교의 하워드 헨드릭스(Howard Hendricks) 박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일러주신 제1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교수는 한 주간이 지나 수업시간에 대답하기를, “지난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라네.”

우리의 삶은 몇 미터 되지 않은 수족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비마람이 불고 때로는 눈보라 치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외부의 많은 영

향이 있음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은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고백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그 길을 부끄러움 없이 잘 걸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기적과 비유, 많은 말씀과 행동으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뒤섞여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 9:22)**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 14:31)**

히브리서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 옷으로, 재물로, 연은 병성으로, 자기 의로, 자기 성취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이며, 그 결과는 어떤지 보여주는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가 생각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나 생각, 아버지 데라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영적 경험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광야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낙타와 함께 광야를 건너던 대상들처럼 광야를 한 번도 건너본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조건을 한 걸음으로 능가하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음을 깨닫습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Juan Carlos Ortiz) 목사는 1974년 열린 스위스 모산선교대회(모산선교대회)의 주 강사로 초청받은 이후 세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첫 아이 데이비스가 태어났지요. 귀엽고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는데, 문제는 얼마 지나자 아기의 밤낮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고 놀아야 하는 낮에는 종일 잠만 자다가, 자야 하는 밤에는 계속해서 울어대니 부부는 일도 못하고 잠도 못자서 생활 리듬이 깨져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르티스 목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석을 좀 때려줘야겠어. 그래야 너석이 밤에는 자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밤에 아빠 오르티스는 우는 아기의 침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아버지를 보자 웅얼이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 너석 봐요.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너석을 내가 어떻게 때릴 수 있겠어.” 그때 오르티스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라 자녀 된 우리의 관계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아기의



GOD IS
FAITHFUL

삶과 생명은 단 하나, 부모에게 붙어 있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을 말
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큰 업적을 세워서 받는 표창장이 아니고, 열심히 어디를
다녀서 얻는 자격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도나무 가지
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붙어 있으며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
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여러분이 가는 길이 기울어진 듯이 어렵지 않은가
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과 긍휼로 대해 주시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도
그곳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저출산 문제, 사회적 과제만은 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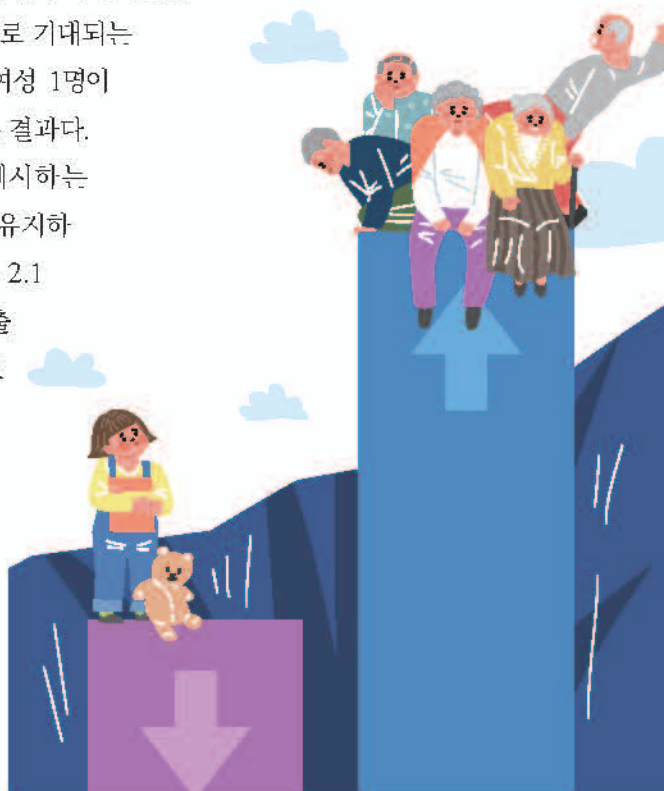
인구감소는 교회학교의 위기 ... 이대로는 교회 미래 보장 못해

| 박만서 목사(한국기독교공보 편집국장)

세계 국가 중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현재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4명이다. 여성 1명이 자녀를 평균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결과다.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제시하는 선진국에서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최소 2.1명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2년 2.39명을 정점으로 1983년 2.03명으로 낮아졌으며, 이후에는 계속 떨어져 2016년에는 1.17명으로 심각한 수준을 드러내면서 지금은 0.84명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경우, 203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의 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10년도 안 남았다.

반년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이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0년 2월에 발표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사실상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적은 상태에서 역전되는 시점을 두고 '데드크로스(Dead Cross)'라고 말할 정도로 위험 수준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가 왜,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될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이 전년 대비 5만 851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줄어든고 있는 결과다. 이 중 2만 8817명이 영아부에서부터 중고등부까지 줄어든 교세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교세 감소 원인이 교회학교 학생이며, 그 주요 원인이 출산율의 감소에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 단계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교회학교 학생의 교회 출석에 부모들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을 감안할 때, 교회학교 감소 원인이 부모 세대인 3040세대의 문제와도 직결됨을 알 수 있다. 현재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들의 경우 80~90%가 부모의 신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즉, 3040세대에 대한 교회의 관심과 대책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 사회의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듯이 교회 또한

교세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미 교회학교가 없는 한국 교회가 50%를 넘어섰으며, 계속해서 교회학교를 폐쇄하는 실정이다.

교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한데, 이와 함께 영유아부터 아동 청소년에 이르는 세대에 대한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저출산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로 국가가 흔들리듯이, 교회학교의 학생 수 감소로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학교의 과제는 부모 세대인 3040세대와 직결돼 있음을 감안해 종합적인 내안 마련이 시급하다. 3040세대가 교회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아동 청소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기 때문이다.

교회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곧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교회 교육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과제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저출산 시대, 미래를 위한 영유아기 아동의 교육은 어떻게?

~고척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장은 주 목사(영아부)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신생아 수가 해마다 10% 이상 줄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그 수가 36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연간 신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줄어드는 것은 국가적으로 처음 있는 양상으로 초저출산을 나타낸다.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 시대에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람, 인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할까? 현재 고척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성품교육]

오늘의 4차 혁명 시대를 지나 맞이하게 될 미래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변화, 기술의 융복합화, 에너지와 자원의 문제 등을 안게 될 것이며, 지적 수준은 더 높아지는 반면 인간성의 결여가 커지는 가운데 빈부격차와 경쟁은 더 심화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AI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윤리성이 매우 강조되고 서로 힘이 되어 공존하는 협력의 가치가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미래에 필요한 인재에게 네 가지 덕목으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성품에서 비롯된다. 성품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고척하이성품스쿨에서는 아기 영아부에서부터 학령기에 이르기까지 1년에 2회 성품교육을 실시하는데, 한 가지 성품 주제 아래 다양한 방법으로 8주간 집중 교육한다. 여기에 부모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교재와 음원, 영상을 제공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존재로 세워지려면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인성을 먼저 키워야 할 것이다.

[놀이를 통한 말씀교육]

미래사회는 자기 목표를 실현하면서도 협력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원한다. 협력하는 자세와 창의성은 공부만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우선 잘 놀아야 한다. 자유로운 놀이 경험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공감 능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스스로 유능감을 조절하게 해서 바르고 균형 잡힌 아이로 성장하게 한다.

고척꿈너머학교에는 학령 전후 모든 아이를 위한 '어와나(AWANA)'가 있다. 이 시간에는 영유아기 4~7세 아이들을 위한 퍼즐과 커비를 소개한다. 공동체 게임과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성경말씀을 암송하는 등 놀이를 통해 말씀을 교육한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예배와 소그룹]

영유아기 아동교육에서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경험으로 이끄는 네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 부모의 방식에 따라 아이의 경험 폭은 달라진다. 아이가 어릴수록 감정적으로 더 민감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부모의 영성과 감정 상태가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된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한 영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

고척영유아유치부는 아이의 연령과 성장발달에 맞춰 예배와 소그룹,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예배와 소그룹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아이들은 분명히 다르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다. 어릴 때 형성된 성품과 신앙교육이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이 놀게 하자. 많이 경험하게 하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을 통해 달라질 미래와 역사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



Holy Church - 올라인(All-Line) 예배의 회복

Happy Family - 인생 단계별 가정사역의 체계화

New Life - 성도의 경건과 세상에서의 삶

1. 2022년 표어

▣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2. 주제 성구

• 신명기 16: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 마가복음 1: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 사도행전 2: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 2022년 목회 중점 사항

- 올라인(All-Line) 신앙성장 프로젝트: 교회-가정-성도의 삶

4.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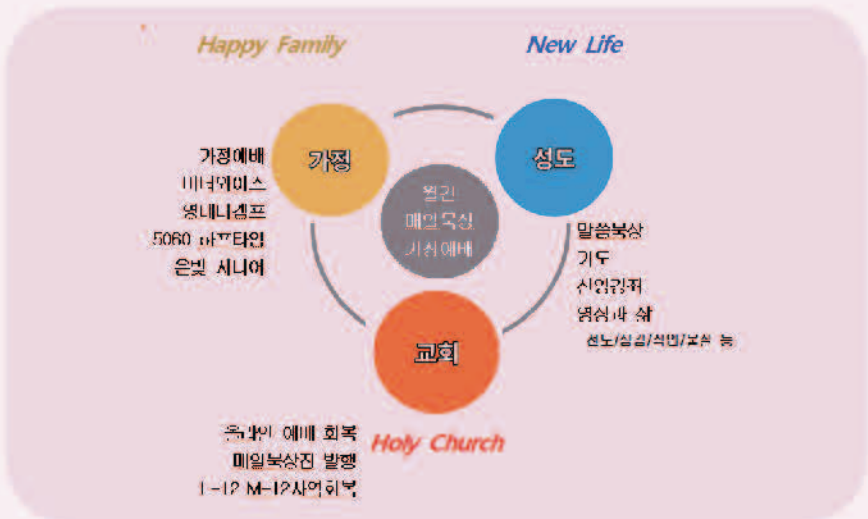
1) '위드코로나'(코로나와 함께) 시대를 맞이해 한국 교회는 인팍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갖는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소원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과 가정은 건강과 안전

에 위협받으며 위축된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과 학교생활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신앙교육과 일반교육 모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2) 우리 교회는 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신앙생활의 본질 회복에 사역의 중심을 분명히 두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배월 교역자들이 협력하여 '매일복상'을 발행하고 성도들을 독려하여 성경 읽기와 복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위드코로나' 상황이 여전히 분화실성 속에 전개되리라 전망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작년에 이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복회 사역 전반의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3) '위드코로나' 상황 속에서 총체적인 예배의 회복을 통해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이루어가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서 인생의 단계별로 요구되는 가정사역이 체계화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매일복상'을 통해 성도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한 안내와 도움을 제공하고, 신앙강좌 등을 통해 성경공부와 함께 가정과 일터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한 신앙적 안목을 갖추도록 지속해서 견인하려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5. 핵심 키워드





나의 특별한 * 크리스마스

| 윤성이 집사(화평 32)

고척동에 이사 와서 마지막으로 들은 성탄절 새벽송이 생각납니다. 한 10년 전 일입니다. 은은하게 들리는 찬송 소리에 잠이 깬 우리 부부는 비록 우리 집 앞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저도 성탄절 새벽송에 대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일이라 잘 생각나진 않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스냅 사진처럼 한 장 한 장 그때 추억이 떠오릅니다. 숫기가 없고 소극적이었던 저는 고척교회 중등부를 다니면서 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격이 많이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고척교회 친구들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키워 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 성탄절 축하 예배 때 많은 사람 앞에서 처음으로 성탄절 연극에 참여한 추억도 있습니다. 비록 대사도 적고 짧은 등장이었지만 의미 있는 경험이





라 지금도 당시 설레던 마음의 제가 떠오릅니다.

성탄절의 자정이 되면 집사님들과 친구, 선배들과 함께 팀을 이뤄 교회 성도님들 댁을 찾아가던 길이 생각합니다. 그 시절 고척동은 높은 건물도 없고 주위에 논밭이 많아 멀리서도 교회 종탑이 잘 보였습니다. 교회 마당에 장식한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는 온 동네를 환희 밝혀주었습니다. 처음 가 보는 동네의 좁은 골목을 다니며 한밤중에 부르던 새벽송은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 앞에 웅기종기 모여 어둠 속에서 별빛과 가로등을 빛 삼아 다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 찬양을 하고, 성경 한 구절(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을 낭독했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우리가 오길 기다리고 맞아 주셨던 성도님들, 문 앞에 놓인 굴, 사탕 등 간식, 집 안으로 초대해서 내주신 따뜻한 음료들이 기억납니다. 가는 곳마다 귀하게 준비해 주신 손길이 있었고, 주신 것을 모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했던 길로 기억

합니다. 비록 손과 발이 일어 감각이 없을 만큼 시렸지만 마음만은 무척 따뜻하고 또 뿌듯했습니다.

새벽송을 마치며 교회로 돌아가는 새벽길, 친구들과 수많은 별을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 탄생 때 동방박사가 왔던 별에 대해 얘기했던 순간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연이 닿지 않는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성탄절 추억 속에 제 얼굴도 같이 스며 있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재잘거림이 가득하고, 내년 성탄절에는 빈자리 없이 성도들로 꽉 찬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내 과거와 미래의 크리스마스

| 이 하 은(청년1부, 99또래)



매년 12월,

순순 추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기대한다. MBTI(성격유형 지표)가 계획형(J)인 사람이든 무계획형(P)인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오래전부터 크리스마스 날에 누구와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며 무슨 선물을 나눠 줄지 고민한다(J는 보통 철저한 사전 계획형, P는 상황에 따라 일정을 변경하는 자유로운 성향으로, 요즘 사람들은 계획하는 사람을 보통 J라고 부르곤 한다).



나도 늘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그날

뭘 할지 계획하면서 손꼽아 기다린다. 과거의 크리스마스의 기억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의 첫인상은 4살 때였던 2002년,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이다. 부모님께서 누군가 선물을 주고 갔다며 현관 앞 요구르트 가방 속을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 선물 포장지를 뜯어보니 노란색 커버와 주황색 버튼의 토끼 캐릭터가 그려진 전화기 장난감이 나왔다. 처음 받은 깜짝 선물이었기에 그때의 기쁨과 감정은 평생 잊을 수 없다. 그 후에도 선물을 많이 받아온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절에 받은 전화기 장난감 선물이 유독 생각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이었다.

초등학생 시절, 크리스마스에 나는 내년 성탄절 공연을 준비했다. 워십(댄스)도 하고, 합창과 뮤지컬도 하고, 핸드벨과 같은 악기 연주도 해본 적이 있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준비한 한 달여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준비하면서 먹으라고 어른들이 사다 주신 감사한 음식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했다. 공연이 끝난 뒤 어른들은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공연을 잘 해내고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중고등학생 시절, 크리스마스에는 교회 언니, 오빠들과 함께 성전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고, 자정을 맞아 12월 25일이 되자마자 케이크를 앞에 두고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는 밤새 함께 게임하고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요즘같이 모이기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돌아보면 그 시절 파티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항상 자신의 생일날을 내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스무 살이 지난 뒤부터는 내가 크리스마스에 뭘 하며 보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다. 크리스마스야말로 다른 휴일과는 달리 너무나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 날이라는 확신이 든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눔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미리 경험했으면 좋겠다.



'성탄절'하면 떠오르는 크리스마스 캐럴과 새벽송

| 최현화 집사(기쁨14)

예전에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캐럴이 거리나 상점에서 흘러나오고 지하철역마다 구세군 냄비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사람들과 연말 모임을 갖고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보냈는데, 얼마 전에 운전하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듣다 보니 올해만큼은 캐럴도 부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포털사이트를 도배하고 있고, 거리에는 간간이 지나가는 시민들만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따뜻함과 축복을 노래하는 캐럴이라니……. 물론 지금 같은 어려운 때 일수록 따뜻함과 나아짐의 희망, 기대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캐럴로 연말의

들뜬 기분에 취하기에는 모든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씩씩합니다. 그 별다 보니 과거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 자주 떠오릅니다.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캐럴과 새벽송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크리마스에는 축복을~ 크리마스에는 사랑을~" 언제부턴가 성탄절 무렵이면 이 노래가 생각나고 입에 맴돌아 계속 부르게 됩니다.

머리맡에 양말을 걸어두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며 잠들던 어린 시절, 잠결에 밖에서 어렴풋이 캐럴이 들려오면 우리 할머니는 제 옆에서 주무시다가도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서 초를 들고 찬양하던 분들을 반갑게 맞이하러 나가셨습니다. 그때는 잠에서 깨면 머리맡에 선물이 없을까 봐 같이 일어나 나가진 못하고 궁급해서 실눈을 뜨고 봤지만, 할머니가 열어두신 문을 통해 집 안 가득 들려오던 찬양 소리와 반갑게 인사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준비해 두었던 음식을 내어 주시며 축복하고 감사하며 야기 예수탄생의 기쁨을 나누던 소리는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자정부터 새벽까지 초를 밝히며 골목에 올리던 크리스마스 캐럴 합창은 즐겁게 잠에 빠지게 했고, 저도 꼭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그 새벽송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12월 한 달간은 성탄 전야 행사를 위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며 성극과 찬양을 준비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올라잇을 가능하게 했던 새벽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진행될 새벽송에 앞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시간이 제일 신났습니다. 사실 말이 모임이지, 친교와 오다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나사렛관에 모여 순발력과 재치, 현란한 몸동작을 요구하는 온갖 종류의 게임을 하고 마니포를 발표해 선분을 나누면서 자정이 넘도록 지치지 않았던 그 시간은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 날만큼은 시끄럽다고 야단치는 경우가 없었기에 게임을 위해 망가져도 그저 좋았고, 맘껏 웃으며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뒤 자정이 되면 담임복사님, 고등부 담당 목사님, 장로님, 부장님 댁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고 사모님과 권사님께서 주시던 간식을 먹으며 성탄절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캐럴은 그렇게 새벽송과 함께 성탄절의 행복한 추억이었는데, 이제는 그때와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어 새벽송을 소란스러운 소음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기에 사라져버린 새벽송이 너무 아쉽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라 성탄 행사가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올해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보내지 못해서 속상해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조용하고 외롭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다리면서, 생각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송 시절처럼 SNS 메시지로라도 캐럴을 전해볼 까 합니다.



나의 올해 성탄절 기도는 단 하나!!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친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에 함께 모여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 주세요!!”

이 기도가 2022년에는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다리며~

| 이은 선 집사(사랑 14)

저녁 산책 중에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색 불빛의 크리스마스트리가 눈에 들어오더니, 기쁨과 설렘이 담긴 누군가의 크리스마스트리가 캄캄한 밤을 정겹게 만든 모습에 이내 옛 추억 속으로 빠져 봅니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인 10년 전만 해도 작은 시골 교회를 섬겼던 11월은 성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은 교회 바깥 성탄 트리의 전구를 손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지휘 아래 아이들과 작은 예배당의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찬송과 울동, 악기 연주, 말씀 암송, 찰막한 연극 등을 연습하며 간식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재잘재잘, 하하 호호~ 아이들의 소리가 가득했던 게 기억납니다.





성탄절야 촛불을 들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등장하다가 혜성이 머리에 붙어 붙어서 화들짝 놀란 일과 어르신들도 구역마다 찬양을 준비하고, 장로님의 열정 가득한 하모니카 연주와 툼툼이 던져진 년센스 퀴즈는 모두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새벽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교회에서는 모두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났고, 사랑이 듬뿍 담긴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떡국과 굴을 든든히 먹고 주일 학교 학생들과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하는 소리와 함께 힘 있게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알리는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해인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날, 현관을 밝히는 문을 켜놓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을 따뜻하게 반겨 준 기억도 납니다. 비가 내리더니 이내 눈으로 바뀌어 수북이 쌓이면서 거리가 퐁퐁 일어 영녕방아를 쥘는 곳은 날씨였지만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하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기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푸짐하게 새벽의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빨갛게 튼 볼에도 웃음이 가득했던 날, 그런 추억이 깃든 날들이 새삼 무척 그립습니다.

'코로나는 문제가 아니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지...'

올해는 바쁜 일을 뒤로하고, 우리 집에도 성탄 트리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신앙공동체의 회복을 꿈꾸며

김민수 교사(유년2부)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느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보다 먼저 우리가 가졌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서로 신체적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감정적 거리 두기는 활성화(?) 됐고,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나 자신부터 챙기고 나만 생각하게 되는 이기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팬데믹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녔던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만큼은 다시 한번 그때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코로나19 종식의 날을 꿈꿨으면 한다.

내게 2019년 크리스마스는 아주 특별했다. 약속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조출하게 파티를 하려고 계획했다. 당시 우리 집은 부천에 있었고 동생과 나 둘만 살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같이 할 사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였다. 그 계획을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던 한



가족부(새가족부)에 얘기했더니 맛있는 요리로 될 해준 거냐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요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갈비를 해주면 놀러 오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 그러자 그게 화근이 돼서 일이 커졌다. 다시 오간 대화로 요즘 회로 대망어가 맛있는데 강서수산분시장에서 사가면 어떠냐는 말이 나왔다. 나는 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맛있다고 하니 네인 점심 메뉴는 대망어와 갈비로 정했다. 게다가 파티에 온다고 한 사람만 대략 14명이라 다 함께 충분히 먹을 양을 생각해야 해서 난감했다.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다들 같이 집으로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이런저런 일로 그날 새벽 4시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크리스마스 당일에 파티를 준비해 본 건 처음이었다.

참 흥미롭게도 그 파티에서는 한가족부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내 동생, 그리고 다른 복장의 친한 청년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어울렸다. 그날이 서로에게 낮은 울타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도 신기하다.



우리가 돈독해지는 상황은 또 있었다. 파티 중에 다들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던 차에 집주변에 있는 쇼핑몰에 놀러 가서 구경 중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전에 음식을 준비하느라 좀 나른하고 피곤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기에 그 말대로 쇼핑몰에 갔다. 그곳에서 구경하다 보니 막상 저녁밥을 사 먹는 것보다 장을 봐 집에서 직접 해 먹는 게 더 절약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모두 돈을 조금씩 걷어서 측석에서 장을 보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런 일 하나도 거기 모인 우리가 그만큼 유대감이 있고 친밀함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경험이었다.

그랬던 한편, 그때 왜지 다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청년의 때에는 오기 힘들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같이 모인다는 게 어려울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언젠가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기약 없는 만남이 될 줄은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로 치유된다고 한다. 물질적인 여유가 있거나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여유로움을 갖고 보듬어 주고 베푸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기까지 하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한다면 좋은 관계는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천국이 우리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고척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고 코로나 종식도 함께 찾아오기를. 그때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함께한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

| 송유미 교사(소년1부)



지금까지 나의 크리스마스를 떠올려보면 내 순간이 특별했던 것 같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렜다. 어린아이라면 가장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나도 물론 부모님께 선물을 기대하곤 했는데, 어릴 적 크리스마스 때 뭔가 큰 선물을 받은 기억은 없다. 그보다 그 시절에 느꼈던 감정,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보낸 시간이 기억난다.

어려서는 그저 받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인 줄만 알았던 나는 성장하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최고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가족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한 것 같고 특별했다.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음에 늘 감사했다.

크리스마스를 가족과 보냈다면 그다음 날은 내게 친구들과 보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던 일이 떠오른다.



가족과는 내년 함께하지만, 친구들과는 점점 만나기도 힘들어 한번 한번 시간 맞춰 보는 일이 참 소중한데. 그래서 인지 그만큼 그 시간이 더 기억에 남곤 한다. 되돌아보면, 크리스마스에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반가운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에 즐거움과 특별함을 느끼는 것 같다.

몇 년 전까지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유일하게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보냈다.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의 크리스마스 날이 코로나19 탓에 조심스러워졌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아쉽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나마 작은 기쁨과 즐거움도 없지 않았기에 가장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한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제일 기대된다. 어엿한 성인이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동심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만 보아도 행복하고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지금도 두근거리는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이번 크리스



마스는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남는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축복이다.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내게 특별했다. 단 한 번도 특별하지 않은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그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에 크리스마스에는 가장 특별한 선물을 받으면 좋겠다. 그 선물을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고,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특별하고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세요~!

추억 속의 성탄절을 찾아서

| 박 명 수 교사(중등부)



12월이 되면 유난히 바빠진다는 느낌을 내 몸은 기억한다. 지난 달력이 몇 장 찢기고 헐거워진 것처럼 2021년의 12월이 그렇게 차분하게 다가온다. 이제 더 이상 6시까지 종종길음으로 예배당에 모여 성탄준비를 하지 않는다. 눈을 깜빡이며 숨며서 나는 예전의 성탄절을 되돌아 본다.

시골은 아니지만 변두리 작은 개척교회에 다녔다. 북적거리며 여러 팀이 성탄준비를 했고 나도 집에서 볼래 얼마 놔배 바지며 반짝이 복도리 빨간 루즈 등을 챙겨, 성격 낫된 여인숙 아줌마 역을 분장한다.

실수하고 넘어쳐도 마냥 즐겁기만 한 성탄절 이벤트가 웃음 가운데 끝나면 모두가 돌아간 자리에는 다시 중고등·청년·장년 집사님들이 남아 찬양과 게임을 하며 밤새 예배당의 불을 밝힌다. 왜? 무엇을 준비하는 걸까?

'새벽송'이다. 내가 그렇게 중학생이 되길 기다린 이유였던 바로 그 행사 '새벽송'!!! 수북하게 내린 눈에 발복 오는 형깁 신발이 녹아 발가락까지 뽁뽁 일어 시러워졌지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렁차게 부르며 추위도 찬양이 된 그 시절, 여러 집을 다니다 보면 명치 큰 청년 형아의 어깨 위에 훌쩍하게 늘어져 있던 큰 자루에는 어느새 분북하게 간식들로 커져만 간다. 배서운 눈바람 피해 잠시 봄 녹이라며 따끈한 떡국을 대접하시는 집사님도 계신다.

젖은 양말도 부족해 하얀 무명실로 대충 성글성글하게 꿰내어 실밥이 툭 터진 검정 양말 끝으로 일은 엄지발가락이 모닥모닥 김나며 부끄럽게 나온 것도 모른 채 떡국을 먹었는데... 푹푹 비우고 오는 길에 내 주머니에 포근하게 잡히는 털실 양말을 내 손끝은 지금도 기억한다. 바닥이 윤기 나도록 신었던가.

간혹 다세대 주택 앞에서 찬양이 끝나면 맞은편 집에서 슬며시 나와 "저희 분교여요" 하며 웃던 일... 바닥이 다 헤져야 미끄럽타기 좋아 새 신이 인기 없던 시절 그렇게 우리는 새벽을 보내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기쁨을 했던 것 같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추억을 주고 싶다. 나라마다 2천년, 4천년 전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율법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새벽예배, 금요철야 예배, 성탄절 새벽송은 우리나라의 멋진 전통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찬양은 요즘 SNS나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시며 이곳저곳에 소식을 전파하신, 찾아가는 복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존귀한 아기 예수님을 낮은 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복상하면서 2021년, 다가오는 성탄절은 찾아가는 새벽송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싶다.

“ 기쁘다 구주 오셨네~~~~~ ”

추억의 성탄절

| 이 성 숙 집사(유아부 부장)

"흰 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징글벨' 등 다양한 캐럴송이 울려 퍼졌던 예전의 거리가 생각 납니다. 그 당시 상점들은 크고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들을 예쁘게 장식해 놓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없게 됐 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도 사랑하고 축하받고 싶은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납니다. 더군다나 작년에는 코로나19로 교회에서조차도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좋아지리라 생각하며 유아부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가슴 뛰는 추억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오래전 새벽송을 불렀던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이른 새벽에 성도들의 가정을 돌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새벽송 행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탄 전야제를 마친 늦은 시간에 인순자 선생님을 따라 몇 분의 권사님과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그분들 집 앞에 도착하면 한복소리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셨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고맙다면서 늦은 시간임에도 음식이나 간식을 챙겨 주셨고 같이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때로는 선분도 챙겨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아파트가 많지 않았고 집들도 옹기종기 모여 있던 시절이라 다른 동네로 갈 때는 몇 분씩 수북이 쌓인 눈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새벽송이 즐거워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늦은 시간에 누군가를 초대해 대접하는 것이 큰 부담일 텐데,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정성이 담긴 크고 작은 선분 꾸러미까지 챙겨 주신 따뜻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분들처럼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고, 그렇게 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모든 성도님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쓰기를 통한 배움과 즐거움

| 임종호 협동안수집사(소망 7)

내가 성경 쓰기를 시작한 노트를 보면 시작일이 12년 전인 2009년 7월 6일로 돼 있다. 그 시작은 지극히 단순한 계기였다. 연초에 거래처에서 받아 쓰지 않고 있던 다이어리를 보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특별한 생각 없이 성경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두 번, 영어로 한 번, 한글·영어·일본어 세 가지로 한 장씩 쓰면서 신약을 다 쓰고 구약 창세기를

지나 출애굽기를 건너는 중이다. 언제 까지일지 확신할 수 없지만, 건강과 생각이 허락하는 날까지 많은 적든 조금 씩이라도 쓸 생각이고 기도 제목이다. 돈이켜 보면 성경 쓰기로 즐거움을 넘어 말할 수 없이 많이 배웠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에 적극 동의 하면서, 18개월 된 손녀가 자라는 것과 키우느라 노력하는 딸을 보며 '세상과 문화가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한다.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 없으니 육적인 스트레스는 땀 흘리는 운동으로, 영적인 스트레스는 성경 쓰기로 풀어나가는 일상을 보내려 한다.

성경 쓰기를 통해 나답대로 배운 것 중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그 답은 "예수님"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 지위, 능력 등을 근거로 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은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고 대변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넘어선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 물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설득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활을 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자주 거론되는 '내려놓음'(내 스타일에서는 바보처럼)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바보처럼'이란 말은 실제 바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는 모습으로, 제내로 된 자기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조용히 살아가는 정도로 이해한다. 겉보기에는 분이 분보다 무서워 보이지만, 분은 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장애물을 품으면서 녹인다는 것을 배웠고, 어찌보면 예수님의 생애도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한다.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목소리 큰 사람이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아도, 상대방이 고빈해 보도록 차분히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은 내 절친한 친구인 동시에 24시간 동행하면서 내게 쓴소리를 해 주시는 멘토라고 믿는다.

두 번째 배움은 **생활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 10:16)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담과 허와를 유희한 마귀의 상징 뱀 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신 것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보니 그 말씀이 제대로 다가온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경쟁은 더 심해지는데, 여기서 제대로 살기 위해선 두 가지가 다 필요하구나 하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언제 사용하느냐이다. 나를 합리화하고 자랑할 때 지혜를 쓰느냐, 아니면 남을 약자를 이해할 때 지혜를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욕심이란 간단히 보면 부정적일 수 있지만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려는 제대로 된 욕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로움'이 아닐까. 생활 속에서 늘 생각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8절에서 사드락·메삭·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

게 답한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의 자세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하며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할 도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큰 틀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하나 결과에 상관없이 믿는 자의 도리를 다 하면서 살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큰 배움으로 다가왔다.

세 번째로 배운 것은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증독되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디딤돌이 되어 일어설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 수도 있다. 즉, 단기적인 노력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씩 쉬지 않고 꾸준히 가는 끈기가 더 좋은 모습이다. 살기 어려울 때는 경제 발전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처럼 많은 것이 풍부해지니 입으로는 감사를 말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다.

성경 쓰기도 의무적으로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쓰거나 깨끗하게 쓰려고 하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나 내게 지치거

나 재미가 없어지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 사람은 시간이 남으면 좋은 일보다 좋지 않은 일, 엉뚱한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나이가 들면서 할 일은 줄어들고 시간만 남아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 그럴 때 성경 쓰기를 하면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고, 그 시대를 이해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그런 노력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면서 배우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다.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이 보내 주신 세상'에 소풍 왔다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놀다가 부르실 때 웃으며 가고자 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안수집사 은퇴를 앞두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있다면

| 오경주 안수집사연합회장(은혜 20)

지금까지 지내온 것 感謝

쌀쌀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면서 잔뜩 움츠리게 되고 낙엽이 떨어져 나무가 더 앙상하게 느껴지는 계절에 은퇴를 앞두고 이 글을 쓰려니, 지난 30여 년간 고척교회와 함께한 모든 날이 생생하게 스쳐 지나가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앞에 새삼 감격하게 됩니다.

처음 고척교회 등록하여 찬양대로 봉사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라는 지휘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부족한 점을 배우며 찬송으로 은혜받





던 일. 맑은 공기와 대자연 속에서 야외예배를 드리며 즐거웠던 일이 떠오릅니다. 수개월 전부터 정성을 들인 찬양으로 찬양대회에 참석한 것은 그간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열매이고 감사의 노래였습니다. 그렇게 제게 찬양은 영혼의 피로회복제입니다. 찬양을 통해 위로받고 은혜받아 삶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
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 삶
은 비교적 순탄한 향해였습니다. 어찌
다 크고 작은 파도에 부딪히기도 했지
만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
을 느끼며 어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하는 큰 파도 속
에서 사경을 헤맬 때 주님이 저를 지켜

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퇴원 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버킷리스트에 적어 놓으면서.

그중 하나는 헌혈 100번 참여하기입
니다. 남을 위한 거창한 봉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헌혈도 일종의 자원봉사요,
이웃을 위한 진정한 나눔의 한 방법이
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헌혈하다 보니
100회를 넘어 적십자 헌혈 유공 표창
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헌혈로 3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300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린 셈이라
생각하면 이 또한 감사합니다. "헌혈은
혈액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
로운 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듯이 앞
으로도 헌혈은 계속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은퇴를 앞둔 제



가 아무런 경험도 없는 네도 청빙 위원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한 청빙 과정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청빙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성도로서의 제 존재에 대해, 심사 과정 중에 스스로 삶과 방향성에 대해 돌아보게 됐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무탈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해주

시고, 생각이 달라도 경청하여 존중하며 공정한 결정을 위해 노력함으로 그 결정에 순종하는 위원회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에 감사할 수 없으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도 감사하기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명심하고 보니 소소한 것이 다 감사합니다. 출출 흐르는 시냇물이 고맙고, 아파트 앞 공원의 공중을 나는 새들을 보며 고맙고, 울창한 숲과 비 내림이, 눈 내림이 고맙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나서 마음에 부딪힌 성경구절 네살로니가전서 5장 16~19절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또 감사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감사는 지금도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저를 위해 차려주는 따뜻한 아침 밥상에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 건강 모든 것을 담아 차려낸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마무리할 시간이라고들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인생을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살기로 작정하며, 지금까지 지내 온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P.S 현혈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연락(T. 010-3745-7488) 바랍니다.

가을밤을 은혜롭게 수놓은 무대

박강노 테너 독창회를 다녀와서

| 김 정 윤 정로(심김 6)



테너 박강노님의 귀국 독창회 (2021.11.4. 저녁 7:30)가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음악 애호가와 여러 귀빈을 모시고 성공리에 열렸습니다.

타고난 화려한 음색으로 잘 다듬어진 음악은 곡조마다 곡의 특징을 잘 표현한 연주와 어우러졌습니다. 박강노 테너는 성악가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살아 숨 쉬는 감동을 주면서 관객의 마음을 하나로 사로잡았습니다. 고음 처리가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화려했고, 강한 음 이상으로 연주하기 힘든 여린 음(pp)을 누에가 실을 뿜듯 곡의 잔잔함과 긴장감을 살려 표현하며 곡의 수준과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첫 곡인 랄프 본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의 'Four Hymns'는 조선유의 비올라 협연으로, 독창에 피아노, 비올라 연주가 중저음의 분위기를 내며 조화를 이뤘습니다.

라은진 교수의 피아노 반주는 독창을 빛내 주는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연주였습니다. 악곡의 강약을 조절하며 강렬하다가도 잔잔하게 은쟁반 위의 은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터치로 분위기와 느낌, 곡의 완성도를 높이며 곡을 잘 뒷받침해 박강노 테너가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앵콜곡은 찬송가였습니다. 박강노 테너의 선창으로 다 함께 부른 찬송이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갈길 원하는, 거듭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

깊어가는 가을밤, 아름다운 연주로 감동을 선사한 테너 박강노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는 '이쁜 자녀들'이 되어라

| 윤종선 집사(화평 13)

사랑하는 딸 채영아, 보아라.

'우물가' 글로 요청받긴 했지만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 같아 몇 자 적어본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아빠한테는 그래도 애교쟁이인 내 딸 채영아,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벌써 내년에 고3이라니 아빠는 믿기질 않네.

코로나19 사태가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올해 11월부터는 '위드코로나' 상황이 됐구나.

그전까지 날씬했던 네가 '확진자'가 돼가는 걸 보니 아빠는 웃음이 나더라.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딸은 좋아하는 보컬을 하고 싶어 하는 거 잘 안다.

그렇지만 내년 일 년만 잘 참아내면 앞날이 밝으리라 생각해.

착하고 이쁜 딸, 파이팅!

사랑하는 아들 전우야, 아빠가 많이 놀아주지 못해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덤벨 사서 같이 운동하려고 한다.

애교쟁이인 아들, 이제 키가 아빠만 해져서 마냥 어린애라고는 볼 수 없어 조금은 슬프네.

내년에 우리 전우도 고이 되는구나.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을 잘 견디면 희망찬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빠한테는 우리 채영이, 전우 모두 내 분신 같은

존재고 아빠의 희망이야. 너희가 없으면 아빠가

무슨 재미로 살겠니?

사랑하는 아이들아, 코로나19 좀 물러가면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

모두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따르는

이쁜 자녀들이 되어라. 사랑한다♥



아이와 함께 읽는 동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엄마 아빠 이야기

고척교회 도서관 책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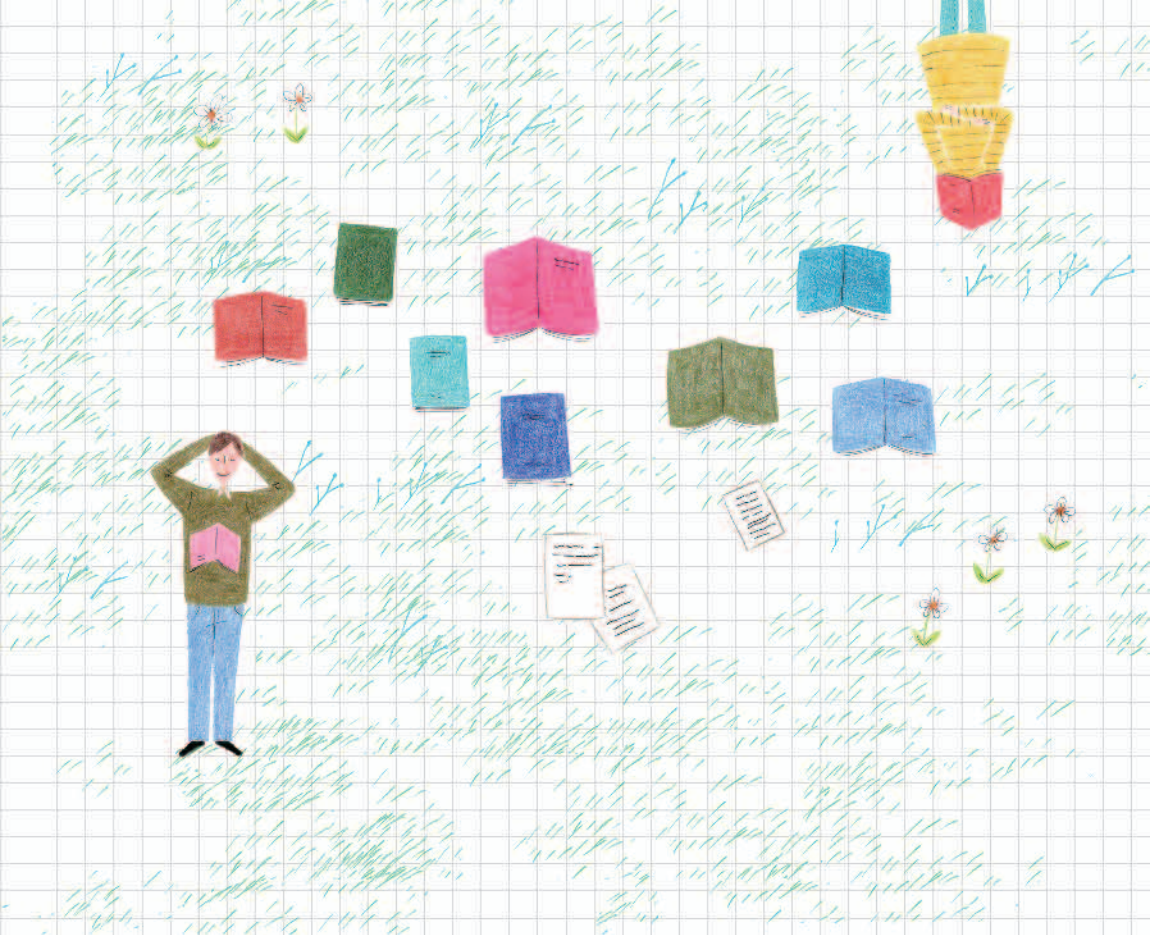


엄마 자판기



조경희 글 · 그림 | 노란돼지

직장 생활에 바쁜 엄마가 집에 혼자 남겨진 아이에게 김밥과 과일을 잔뜩 준비하고 혼자 알아서 먹고 공부하고 씻고 숙제 잘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아이는 토요일에는 놀이공원으로 엄마랑 놀러 가고 싶어 하고, 놀아주지 않는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엄마는 미안한 마음에 '엄마 자판기'를 만들어 아이와 밤새도록 놀아주고 일요일에는 치킨 몸을 이끌고 놀이공원에 간다. 바쁜 엄마가 외로운 아이를 위해 힘들게 놀아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들 엄마를 생각해보고, 엄마의 소중함과 더불어 외로운 아이에 대한 애잔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동화다.



아빠 자판기

늘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집에서도 통화만 하는 아빠가 이상한 아저씨처럼 보인다. 주인공 신우는 아빠와 요리하자고 약속했지만, 아빠는 피곤하고 지쳐있다. 아빠를 원망하며 “아빠 미워”를 외치는 아이에게 아빠는 ‘아빠 자판기’를 만들어 다양한 모습으로 원하는 놀이를 같이 하며 아이를 위한 시간을 보낸다. 이야기 속의 신우 아빠는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아빠이고, 주인공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 글을 통해, 가족을 위해 지치도록 바쁘게 지내는 아빠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 볼 수 있다.



도시 속의 공원이 주는
여유 N Healing

6탄
긴 겨울에 나 홀로 훌쩍 떠나고 싶은

강화 교동도

글·이재만 안수집사(우물가팀장)
사진·이은경 집사(사랑 39)

몇 년 전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동계 워크숍으로 강화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동막해수욕장 인근 논에 마련된 빙판 위에서 썰매를 타고 달리기 시합도 하고 따끈따끈한 겨울 간식도 먹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 열심히 얼음뎠이를 살려보기도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더 좋은 겨울 강화는 없을까 해서 우리나라 최북단 중의 한 곳인 교동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강화군의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였던 '대릉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은 교동대교 개통 이후 대릉시장 등을 찾는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이 교동도를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새단장하기 위해 대릉리 상인회와 지역주민이 힘을 모아 '대릉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여 골목길 보도블록 포장, 마을과 시장 게이트를 조성하면서 교동도 대릉시장을 추억이 있는 골목길로 재정비했습니다.



교동도 대룡시장은 황해군 연백군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있는 시장인 '연백장'을 그대로 본떠 만든 골목시장입니다. 골목 곳곳에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벽화와 조형분, 오래된 간판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이발소, 잡화점, 신발점, 약방 등 시간이 멈춘 듯이 1970년대의 풍경을 재현합니다.



교동도의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화개산 일원에는 북한의 연백평야 등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워크형 전망대도 설치했습니다.

또한 화개산성, 연산군유배지, 교동향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화개정원 조성공사로 교동도가 대한민국 민동선 대표관광지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겨울 강화는 오히려 다른 계절이나 여타 주말보다는 여유로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가을 단풍 구경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긴 겨울, 강화 교동도로 혼자 훌쩍 떠나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로 길이 안 막히면 1시간 반 정도 난짓 질리는 구간이라 만나절이나 당일치기로도 좋은 곳이 바로 교동도입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레드로 교동도의 감성 충만한 골목시장은 앞서 잠깐 언급 했듯이 황해도 연백에 사셨던 분들이 피난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게 된 실향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굉장히 오래된 전통시장이라고 합니다.

대룡시장 입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방향이든 가까운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시장 입구에서부터 색다른 추억의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배장들이 여행객을 반깁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시장은 여기가 지금 2021년인가 싶을 정도로 겨울에 혼자 여행해도 후회하지 않을 풍경입니다.





1960년대 아니면 70년대? 황해도식 식당과 시장이 황해도 연백 시장과 매우 흡사하게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교동도 대룡시장에는 오래된 추억을 불러내면서도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새롭게 문을 여는 매장도 꽤 많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구경하는 데 40분에서 1시간 반이면 구석구석 시장 모습을 살살이 훑어볼 수 있는 곳으로 젊은이들의 기분 좋은 반일치기, 친구들과 가족끼리 함께 둘러보기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나 홀로 떠나보는 교동도 여행. 길고 추운 겨울에 안전한 이분 속보다는 그래도 레트로 감성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교동도를 향해 지금 시동을 걸어 볼까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 안 의 선 집사(구심 사회적협동조합 교육담당 이사)



15년 정도 초·중·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친 내가 너무 우분 안 개구리로 살아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길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성인 교육 계통으로 커리어를 전환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전에 공부하며 자격증을 따고 편입해서 교육학을 다시 전공했고, 지금은 평생교육 전공으로 한국방송통신 대학원에 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하나를 배우고 나면 또다시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 계속 공부하게 된다. 15년간 해오던 익숙한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교육 대상과 내용을 바꾸는 커리어의 전환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



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기에 잘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나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나 직장인들은 매년 꼭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보통 5내법정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안전 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으로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가 필수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다.

나는 우선 강사로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과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을 강의한다. 특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분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전문 강사로 장애인 고용 관련해 컨설팅을 함께 하고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년에 한 번, 1시간 교육하는데,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곳곳에 남아있다. 고용에는 더 그렇다. 2019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비장애인보다 1.7배가 더 높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 2020년 기준으로 약 263만 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5.1%로 6가구당 1가구에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많은 장애인과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하려 가면 “우리 회사에는 장애인도 없는데, 왜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받아야 한다. 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니까!

장애를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비율(5.1%)보다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88.1%)이 훨씬 높다. 후천적 요인인 사고와 질환 중에서 장애를 갖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이 사고(32.1%)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질환(56%)이 더 높다. 나이 들면서 우리의 신체 기능은 떨어지게 되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질환에 걸리고, 그 질환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등록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걸 보면 노화와 장애의 비율이 함께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누구나 나이 드는 걸 피할 수

없으니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다.

그보다 더한 장애의 원인으로서는 사람들이 가진 장애에 대한 편견과 사회 환경이 만들어 내는 물리적 장벽이 더 크다. 한양대 교육공학 교수인 유명반 교수의 저서 중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라는 책에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 나이만큼 키워 온 개 두 마리가 있다. 그 개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이다.”라고 쓰여 있다.

“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이 견내주는 음료수는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편견과 선입견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법칙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너무 핫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를 설명하고 글을 마치려 한다.

2012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을 받으면 장애인 1

명 당 3천 만원(최대 10억원)까지 무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무상이란 7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말이다.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빈간 3.1%, 공무원, 공공기관 3.4%)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내달 급여에서 고용 장려금도 지원되고 고용부담금도 감면받는다. 공공기관은 표준사업장에 생산한 생산품을 예산의 0.6% 기준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금액 제한이 없다. 무상지원금 대신 1%의 저급리용자(장애인 1인당 1억원, 15억 이내)를 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법인세도 2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구매하면 기업이

내는 고용부담금에서 50% 감면받는 연계고용도 가능하다.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아직 전국적으로 500개도 되지 않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권한다.





수능 축복 안수기도회

고척교회 고등부에서는 매년 수능 전날 위임목사님을 모시고 '수능 축복 안수기도회'를 진행해 왔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도회를 갖지 못했는데, 올해는 11월 17일 저녁 6시에 지하 1층 채플 성전에서 다시 진행했다. 수능생들은 각자 기도 카드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적었고, 20여 명의 학생과 부모님들이 한 가정씩 나와 위임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다.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길,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교사 한마음대회

2021 고척교회 교육위원회

교사 한마음대회

라이브

특강 고은식 목사



찬양 한밀 스튜디오



2021년 11월 27일(토)

저녁 7시 - 9시 / 1층 문화공간 채움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교사 한마음대회'를 11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1층 채움 성전에서 가졌다. 위임목사님의 격려와 기도로 시작해 한밀스튜디오 팀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이어서 고은식 목사님이 강사로 나와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한 강의를 해주셨다. 이후 한마음으로 교사들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행운권을 추첨하며 모든 교사에게 선물로 톨케이크를 전달했다.





고척교회 찬양부 영성세미나

지난 2년간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제한적 인원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힘들었던 점은 예배 찬양이 많은 부분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와 찬양팀이 완전한 구성을 갖추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화한 비대면 예배가 찬양부 팀원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송을 부르고 함께 연합하는 사역의 의미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방역 체제가 '위드코로나'로 전환되고 다시금 예배가 활성화하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영성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찬양부 사역의 의미와 열정을 되살릴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총 4주(11월 20일~12월 4일)에 걸쳐 매주 토요일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예배와 찬양에 관한 개념, 그리고 실제 역량을 강화하는 강좌를 가졌습니다. 언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척교회 찬양부 사역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만난 반가운 아이들

| 장은 주 목사(영아부)



1. 감격과 감사 가득한 <추수감사주일>

코로나 4단계 방역수칙으로 하반기 내내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지난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에 드디어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손 잡고 들어온 아이들과 교사들이 만나 무척 반가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사리손으로 준비해온 과일을 하나님께 헌물로 올려드린 아이들과 감격스럽게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보내며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더불어 감사의 의미를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도록 학습·활동교재도 보내드렸습니다.





2. 엄마·아빠들을 위한 소그룹 (그림책 이야기방 + 요한복음 여행)

영아부 부모의 소동과 양육, 신앙 성장을 위한 소그룹 방을 오픈해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줌 플랫폼을 이용해 각각 10주간 진행합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읽어 주는 그림책으로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소동하는 시간이 참 소중한입니다. 서로 지지해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했다.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시간을 내기 어려운 와중에 모여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행복임을 느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3. 대림절기 교육활동과 성탄축하 발표

대림절을 맞아 예수님의 오심을 복상하기 위해 놀이복상집과 컬러링 자료, 캘린더 등 신앙교육 자료를 준비해서 모든 가정에 보냈습니다. 예배실에는 가랜드와 성탄 트리, 반짝이는 전구로 환경을 조성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를 새겼습니다. 다가오는 19일에는 성탄축하 발표를 위해 '아기천사들의 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 때문에 만남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탄축하 발표 행사를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4. 연말 시상 및 진급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한 해 동안 예배와 교육활동에 잘 참여한 아이들과 가정을 격려하고 유아부로 진급하는 아이들을 축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맛씀 따라 콩콩콩! 믿음이 쓱쓱쓱!

| 정 윤 경 목사(유아부)



가을이 끝나갈 무렵, 주일예배 현장에서 만난 우리 유아부 큰 별, 작은 별 친구들은 어찌나 많이 자랐는지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우는 아이 하나 없이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언제 온라인 예배를 드렸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반가운 마음이 앞서면서도 아이들을 텃석 안는 것을 망설이는데, 도리어 아이들이 선생님의 품 안으로 꼭 들어와 안깁니다. 그동안 교회에 오고 싶었다고, 선생님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귀염둥이들 때문에 폭풍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 싶었다고 말하는 귀염둥이들 때문에 폭풍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주일은 마침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돼 감사가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이며 채소며 감사나눔으로 드릴 것을 저마다 손에 쥐고 와서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을 세어봅시다'라는 제목의 인형극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 가정 연계 활동으로는 '우리 집 감사나무 만들기'를 한 주 동안 각 가정에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감사에 관한 말씀을 읽고 감사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그림이나 글을 기복한 사과열매를 붙이며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한 배려성품 수료식을 진행하며 유아부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배려성품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돼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과 참여로 가정 연계 활동을 실천한 친구들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만날 수 있었기에 아이들이 배려의 리더로 자라가는 것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 주일 성탄 트리를 장식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내림절 기간에 선생님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녹화하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성경 읽어주는 별별선생님'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4주 동안 매일 내림절 말씀달력을 채워가려고 합니다. 이 소중한 활동을 통해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소중한 일상을 살아내다

| 이 지혜 목사(유치부)

코로나19와 함께 어느덧 2021년도를 한 달 앞둔 시점이 되니 한 해를 돌아보게 됩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현장과 온라인을 통한 여른성경학교를 감사히 마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와 가정의 지속적인 소동을 위해 부서 임원분들과 창의적인 소동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주 줌(Zoom)을 통한 부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배주 부장님들과 선생님들이 각 가정과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 개인의 기도 제목 등을 나누기도 하고, 우리 교회와 이웃,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지금까지도 현장과 줌을 통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놓을 수 없는 이유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임

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복도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소동은 줌을 이용한 가정 심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줌을 통해 가정이 오픈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 볼 수 없었던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줌을 통해 만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부쩍 자란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 부모님들과의 대화, 자녀를 위한 기도 시간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그나마 코로나19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일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교회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가의 방역지침이 완화됐어도 코로나19 이전의 모습과 같진 않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된 것이 감사이며 기쁨입니다. 일상은 아직 많은 것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부장님 두 분과 저,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추수감사주일 영상을 촬영해 부서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 나무에 감사의 제복을 적어서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할 제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야말로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 주를 시작으로, 매주 이어지는 대림절 말씀 쓰기 활동이 부모님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평생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영원한 보물은 바로 '예수'입니다.**



교사 전도대 모임은 12월 중반까지

| 한 신 목사(소년부)



소년부는 여름성경학교 이후 7월 중순 번개 모임과 성경 퀴즈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을 영상으로나마 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했으며, 가정 성경학교 이후 아이들이 미진하나마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유튜브를 통해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학교 이후 첫 활동인 만큼 짧게 기도회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성경퀴즈대회는 소년부 선생님들이 진행해 주셨고, 많은 아이가 주어진 미션을 잘 완수함으로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진행하는 사람들만 화면에 보여서 참여하는 아이들과 채팅으로 소통해야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이 이어지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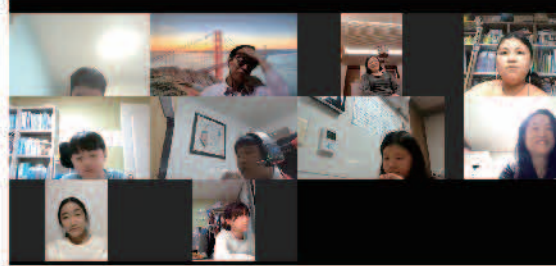
8월 초에 비슷한 방식으로 번개 모임과 성경 퀴즈대회를 계획해 진행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어 선분을 기증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아이들은 풍성한 상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인 만큼 정부 방역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소년부실 문 앞에 선분을 뒤수령자가 명단에 이름만 기입하면 가져가게 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은 9월 행사를 계획하는 소년부 전원을 좀 심망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두 개 반씩 모이기도 했고, 학년별로 섞어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좀 심망은 10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간단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오랜 기간의 어색함을 달랠 뒤 기도회로 마무리했습니다. 기도 제복을 나누며 느낀 점은 아이들의 바람과 소망이 그



리 큰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학교에 다시 가고 싶고, 동네 놀이터에서 장난치고, 교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편하게 가고 싶다는 게 바람의 전부였습니다. 이전처럼 평범하게 균것질하며 간혹 부모님과 외식 한 번 하는 정도가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바라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11월 이후에는 워드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부분이 완화되어 마침내 모두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주 거의 1/3 수준으로만 모이는 실정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정 안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1월 마지막을 향해 가는 주간에는 소년부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학교 앞



만남이 재개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이지만 교사 전도대 모임은 12월 중반까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앞에서 만남을 진행하고 보니 예상치 못한 만남에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상황이 더 나아져서 모두 다 함께 온전한 모습으로 학교와 교회에서 소소한 일상을 꾸려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년 하반기 소년부를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중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살롬!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걸어가는 중등부!

| 박 동 운 전도사(중등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 14:27)



중등부는 작년부터 진행한 '중등부 라이브 방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고척 중등부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합니다. 중등부 친구들을 초청해서 다양한 콘텐츠(먹방, 비대면 레크리에이션, 소동)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천 시간과 함께 소동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방송할 때면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합니다. 아이들의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그동안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더 알아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더불어 '전떡샤'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전떡샤'는 '전도사님 떡볶이 사주세요!'의 줄임말로, 중등부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떡볶이를 먹으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망침으로 진행하지 못했지만, 방역 수준이 완화돼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떡샤'를 하면서 가장 분명하게 느끼는 점은 '중등부 친구들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업-진로-관계에 고빈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 친구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건 전화 한 통이 아닌 만남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중등부 친구들을 편히 만나지 못해 공허했던 제 마음도 큰 위로와 사랑을 받습니다. 만남을 통해 위로와 회복, 은혜의 시간

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히 11월 13일에는 중학교 3학년 친구들과 서울랜드로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놀이기구도 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각자의 고민과 꿈과 비전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심망하기 어려웠던 친구들과 연лай 잘 안 달았던 친구들도 만나게 돼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친구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전도사님! 중등부에 더 있고 싶어요!” “왜?” “이제 좀 만날 수 있게 됐는데 ... 너무 아쉬워요.” “나도 너무 아쉽다 ...”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 제 마음까지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지만, 고등부에 가서도 더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갈 것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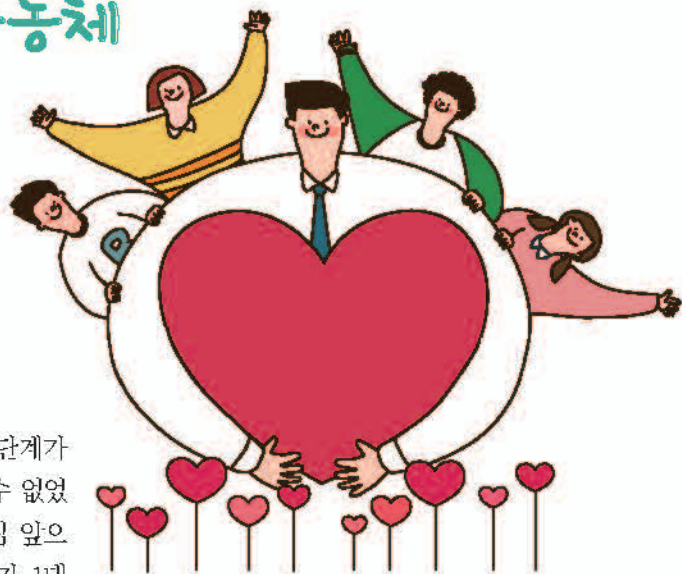
12월에는 중등부 진급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송사, 학생들의 감사 그리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며 아쉬움은 있어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질어갈 중등부 친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부서에는 변화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며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중등부 믿음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소통하며 함께하는 고등부 신앙공동체

| 김재광 목사(고등부)



1. '만남' 프로젝트

8월 여름 사역 이후 코로나 4단계가 계속돼 학생들이 예배에 나올 수 없었다. 그래서 학교 앞, 학원 앞, 집 앞으로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1대 1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라 그런지 무척 반가웠고 학생들도 기쁨으로 맞아주었다. 고등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분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같이 식사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벤치에 잠시 앉아서라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회에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쉽지 않은데 1대 1로 만나니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하길 바라면서 만나는 학생마다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



2. 교사 온라인 줌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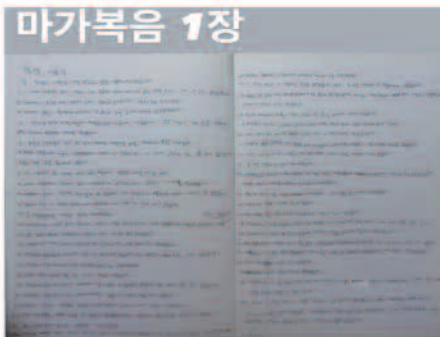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현장에서 교사 회의도 진행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교사들이 줌으로 모임을 가졌다. 배달 첫 주에는 교사와 학생들의 기도 제복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고등부의 중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마지막 주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교사들이 모임 수 있어 감사했다.

3. 학생 기도회

고등부에서는 올해 임원들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10시에 학생 기도회 시간을 가진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저녁마다 예배를 위해, 고등부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먼저 소그룹 방에 모여 한 주간의 삶을 그룹별로 간단히 나누고, 다시 전원이 모이는데, 한 학생이 인도하여 함께 찬양하고 고등부 기도 제복을 나누며 기도한다. 기도회가 끝나면 고등부 전체 단톡방에 그날 나누는 기도 제복과 찬양을 올리며 함께 기도하고 있다.

4. 쓰담쓰담 마가복음 필사 챌린지

코로나19 시기에 함께하는 신앙 운동을 고등부에서 진행하게 됐다. 매일 저녁 10시 유튜브 생방송을 켜고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학생들과 매일 한 장씩 마가복음을 필사했다. 학생들도 그 시간이나 자유로운 시간에 매일 마가복음 말씀을 한 장씩 필사하고 고등부 인스타그램에 올려 인증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매일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닮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5. 청알기 계속 진행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등부 박동운 전도사와 함께 내달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청알기(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독교)'와 관련해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했다. 하반기인 9월에는 '청소년과 독서', 10월은 '청소년과 SNS'를 주제로 삼아 방송했다. 청소년 시기에 한 번쯤 고민해볼 주제들을 선정해 이야기했다. 방송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주제와 관련된 생각과 고민을 채팅으로 참여해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장기화한 코로나19 상황이었지만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시도했다. 계속 소통하고 함께하는 고등부 신앙공동체를 이어가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청년부 소식

1. 2021년 청년공동체 총회 (10.17~11.21)

청년공동체에서는 매년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여름에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가 여름 수련회라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진행되는 가장 큰 행사는 총회다.

청년공동체 총회에서는 회칙 수정과 지난 1년간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보고하는 총무 보고,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는 회계보고가 있고, 다음 해에 청년공동체를 섬길 1·2부 회장과 총무를 선출한다.

항상 예배 후에 오프라인으로 모든 것을 진행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으로 비대면 행사를 열 수 없게 됐다. 감사하게도 현재 상황이 많이 나아져 온·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있어서 회칙 수정, 총무보고, 회계보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회장과 총무 선출은 온·오프라인 투표가 이루어졌다. 투표 독려를 위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작년과 올해 힘겨운 시기를 보내게 한 코로나19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2022년 청년공동체를 임원 직분으로 섬기게 된 회장과 총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부총무, 서기, 회계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2022년을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교척 청년공동체가 내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

[11/20 온라인 투표자] 이벤트 참여방법

- 1 구글폼을 통해 투표한다.
- 2 마지막 투표 완료 화면을 캡처해 임원단에게 보낸다.
[총회 오픈채팅방에 이름, 도래와 같이 보낸다]
- 3 임원단은 온라인 투표자의 명단을 가지고 뽑기를 진행한다.
- 4 뽑기를 할 때 라이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하고
각 음모자에게 당첨결과를 영상으로 발송한다.

응모완료!



2. 사역자 격려의 날 (12.26)

올해도 청년공동체에서는 많은 리더십이 최선을 다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를 섬겼다. 그런 리더십들을 위해, 12월 26일 예배 후 청년공동체 리더십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자 격려의 날을 가진다.

매년 진행되는 사역자 격려의 날은 청년공동체의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탁 교제를 하고 즐기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고, 늘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줘서 고맙고 감사하다. 묵묵히 리더십의 자리를 섬겨준 이들이 있기에,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공동체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다.

[11/21 오프라인 투표자] 이벤트 참여방법

- 1 예배가 끝난 후 투표를 진행한다.
- 2 투표완료 후 나오면서 준비되어있는 뽑기 17개에서 공을 뽑는다.
- 3 공 안의 당첨여부를 확인한다.
- 3 당첨되었을 시 임원단에게 이름과 도래를 말한다 .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도 배움의 기쁨은 충만합니다!

- 고척교회 경로대학 은빛시니어학교 -

| 우 주 온 교무주임(은빛시니어학교, 기쁨교구 12목장)

2020년, 고척교회 경로대학이 <은빛시니어학교>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으려 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 번 정도 입학식을 미루다가 결국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교육 방식이지만, 지금은 학생의 80% 이상이 영상으로 수업을 시청하고 온라인으로 배운 <색종이 소품공예> 작품을 만들어 그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년의 삶> 수업 시간에는 SNS 메시지로 선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식빵 교환권'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과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닌 경로대학 수업내용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변화해가고 있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가운데 교환한 식빵 사진을 올리며 고마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쉬지 않고, 어려운 온라인수업을 진행했는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은빛시니어학교는 어르신들의 삶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좋은 강사님과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도님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22년도 은빛시니어학교 신입생 모집 안내 ◎

올해 3년 차에 접어든 은빛시니어학교는 숨은 창의력과 감수성을 활성화시켜서 배움의 기쁨과 생활의 활력을 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셔서 행복이 넘치나는 노년의 삶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1. **모집 대상:** 카톡과 유튜브 사용이 가능한 분(65세 이상 80세 이하 / 종교 무관)
2. **모집 인원:** 선착순 70명(문의: 교무주임 우주온, 1.010-2482-2102)
3. **제출 서류:** ① 입학원서 1부 ② 입학금 2만원(연 1회 납부)
4. **교육 내용**
 - ① 학기 운영 - 1학기: 3~6월 / 2학기: 9~11월
 - ② 수업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비대면 유튜브 영상 수업)
 - ③ 득선 - 개근상, 과제 우수상, 3년 과성 이수자 졸업상 수여

*모집 기간 및 세부 사항은 고척교회 주보 생활면이나 예배 광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2021년 12월 기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해 갔을 때도 본토에 대한 침공설이 돈다가 크림반도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났는데 7년이 흐른 지금, 다시 러시아의 침공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7년 전에는 내부의 말로 끝났지만,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병력과 침공 시점까지 예측하는 상황입니다. 10월 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사훈련이 끝난 뒤 훈련에 참여했던 92,000~115,000명의 러시아 병력이 자대 복귀를 하지 않고 국경에 계속 남아있고, 추가로 병력을 더 증강하여 대략 175,000명의 병력으로 2022년 1월 말에서 2월 초 침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현시점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러시아가 침공한다면 우크라이나 안의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블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공격 계획을 부인하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나토군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번 겨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안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 확대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옛 러시아 제국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우크라이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곳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북한과 이란에 부여한 최고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고, EU 역시 경제적 제재를 언급합니다.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제재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를 침공하더라도 미국과 EU에서 경제적 제재 외에 군사적 제재까지 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충돌이 생긴다면 러시아의 침공을 우크라이나의 힘으로 막아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25만 병력과 20만 예비군이 있지만 국방력에서 러시아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내부 분위기는 물론 일부 걱정하고 침공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대다수는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 기도제목

1. 우크라이나 교회와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2.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도록
3. 러시아와 관련된 문제가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4. 어려운 국가적 상황에 지도자와 국민이 한마음이 되도록

장로 3인 등 항존직 19명 은퇴

장로 3명, 안수집사 6명, 권사 10명 은퇴



2021년 항존직 은퇴예식이 지난 12월 12일(주일)
은혜대에배당과 온라인을 통한 예배로 진행됐다.



조재호 위임복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식은 서울서남노회 노회장 윤봉섭 복사의 설교, 푸른초장교회 신상진 복사의 기도와 새동산교회 김규호 복사의 축사, 북양교회 임준식 복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고, 소년부 찬양대의 특송과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 축복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다.

이번 향존직 은퇴자는 다음과 같다.

- △ 장 로 은 퇴 : 한영길 정기오 박용현
- △ 안수집사 은퇴 : 정태현 백만성 오경주 박윤철 민정덕 정영수
- △ 권 사 은 퇴 : 황보영 이봉수 소예분 조순례 박순희 김윤월
배수경 손길옥 이영님 최옥주





10월의 어느 멋진 날

작가: 고혜은

전시: 2021년 10월

따뜻하고 두르렀던 10월에 처음으로 함께한 시댁 식구들과의 가족여행은 그름으로 그렸습니. 아프신 분이 이 끌고 가족들에게 불편함을 주시 않기 위해 여행 내내 힘든 내색 없이 참고 견디셨던 아버님이 생각나는 작습니. 아버님이 건강하셨을 때 시부모님 그름을 그려 드리기 위해 찍어 놓은 사진은 그리시노 못하고, 아버님은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일 년 뒤에 돌아갔습니. 이번 그름에 아버님을 담은 스 없었지만, 제주도 외딴개 인 가게와 풀 채운 농장을 함께 은영하는 곳에서 시어머니와 손녀들이 풀을



하는 동안 가게에 앉아 쉬고 저셨던 아버님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름에 담아습니.

평생을 두 분이 해주시은 무시않으시니가 아프신 뒤에 그나마 거동할 수 있으셨을 때, 두 번 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예내드리시고 아내와 사식들 교성시키는 것이 싶으셨든지 해주시께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하셨다고 하신 아버님이셨습니. 은사가 되신 어머니는 시금 예내를 사모하니 아버님이 안 거신 번사리를 믿음으로 채우려고 하신니. 아버님은 방으로 연세에 비해 조금 일찍 친국으로 가셨지만, 결국은 시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한 해주시의 빙분이었음을 깊이 깨닫고 감사드립니.

2년 반 전 그라티아 그름 전시 일정을 계획하고 빨리 올 것 같지 않았던 전시 일정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계획대로 존행되게 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바치게 해 주심을 해주시께 감사드립니.

그라티아 전시회



Sunflower - 빛

작가: 주재숙 / 전시: 2021년 11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해바라기는 해-해- 그리면서 행복과 평화가 오는 듯 즐거웠어요. 평소 꽃을 주제로 많이 그렸는데 해바라기는 너무나 매력이 있었어요. 꽃잎 하나-해-와 꽃씨가 나를 상징한다고 하죠? 우리 부드부드 되고 건강하십시오~



Blossom

작가: 강경애 / 전시: 2021년 12월

느그든지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에 웃음 짓습 -나. 특히 꽃의 특징을 해 -하 -살펴
면 소비습 -나. 해 -나 깨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큰 신물이 겠시오. 꽃을 그리나
보면 색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신의 아름다움에 빠져남 -나. 마치 음악의 선율이 흐르
듯 내 빛의 움직임 -나. 그림을 브이해 -나의 은송과 그분의 아름다운 마음을 함께 느
껴 보스길 바랍 -나.

그라티아 전시회



무제 작가: 안혜영 / 전시: 2021년 9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림 속 공간(space)은 새로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사적인 공간을 찾는 데 있습니다. 나. 선(line)들은 화면을 이루고 느끼시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휴식의 공간이 되고, 또한 그 공간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이의 사적인 마음이 느껴집니다. 나. 1-민의 공간분할로 사유공간 리듬감 있게 신비스러운 느낌을 통해 보는 이들도 다양한 감성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마음을 전하세요~

고적교회 '우물가'와 함께 사랑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전해 보세요.

To.

~~~~~

~~~~~

~~~~~

~~~~~

~~~~~

~~~~~

~~~~~

~~~~~

~~~~~

~~~~~

From.

~~~~~



# 고척교회 예배 안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선교를 실천하는 좋은 교회”

## ◆ 예배안내

|           |     |          |             |
|-----------|-----|----------|-------------|
| 주일예배      | 1부  | 오전 7:00  | 은혜대예배당      |
|           | 2부  | 오전 9:00  |             |
|           | 3부  | 오전 11:00 |             |
| 주일찬양예배    |     | 오후 3:00  | 은혜대예배당      |
| 수요기도회     | 1부  | 오전 10:00 | 은혜대예배당      |
|           | 2부  | 오후 7:30  | 은혜대예배당      |
| 새벽기도회     | 1부  | 오전 5:00  | 은혜대예배당(하절기) |
|           | 2부  | 오전 6:00  | 꿈터 채플(동절기)  |
| 금요성령집회    |     | 오후 8:30  | 은혜대예배당      |
| L-12 리더모임 | 수요일 | 오전 11:30 | 교구별 장소      |
|           |     | 오후 8:30  | 은혜대예배당      |
| M-12 리더모임 | 수요일 | 오후 8:30  | 5층 세미나실     |

## ◆ 교회학교 안내

|                     |                    |          |
|---------------------|--------------------|----------|
| 영아부                 | 주일 오전 11:00        | 비전센터 1층  |
| 유아1·2부              | 주일 오전 9:00 / 11:00 | 꿈의교육관 1층 |
| 유치1·2부              | 주일 오전 9:00 / 11:00 | 꿈의교육관 5층 |
| 유년1·2부<br>(초 1~3학년) | 주일 오전 9:00 / 11:00 | 꿈의교육관 지하 |
| 소년1·2부<br>(초 4~6학년) | 주일 오전 9:00 / 11:00 | 꿈의교육관 4층 |
| 중등부                 | 주일 오전 11:00        | 꿈터 채플    |
| 고등부                 | 주일 오전 10:30        | 문화공간 처음  |
| 청년부                 | 주일 오후 1:00         | 은혜대예배당   |
| 은빛시니어학교             | 목요일 오전 10:30       | 꿈터 채플    |

\* 모든 예배는 '고척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 상담실: 매주 (화) 오전 10시~오후 5시 Tel. 080-686-5871

